

#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1) -

김영태(호서대 벤처대학원 박사과정)<sup>2)</sup>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이들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은 20대에서 50대까지의 예비창업자(창업 3년 이내 포함) 178명이며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나타난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향상하는데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주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선행변수로서 창업교육과 멘토링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매개변수로 선정한 회복탄력성은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되던 변수로서 창업교육 및 멘토링과 창업의지간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 중심어: 창업교육, 멘토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창업의지

## I. 서론

창업은 “경제적 위기와 경제성장이 둔화가 될 때 우수한 벤처 창업기업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시장과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Emenike, 2013).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여러 지역에서 창업교육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Hasse & Lautenschläger, 2011).

정부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향하며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혁신성장 추

1) 본 논문은 저자인 김영태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저자 : 호서대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kyt63@yonsei.ac.kr

· 투고일 : 2020-02-20 · 수정일 : 2020-04-19 · 게재확정일 : 2020-05-20

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안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하에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 가능하며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미래지향형 창업가의 양성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창업 생태계속에서 미래를 선도할 창업가를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고객의 행동패턴을 이해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장에 대한 통찰력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들의 특징들을 관찰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고객의 불편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창업교육이 필요하겠다. 선행연구에서도 사용자 행동중심(User Centered Innovation)의 관점에서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실천중심의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승권, 2016). 창업준비단계,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화 실행 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과 특히 개별 창업자별로 특화된 멘토링이 필요하겠으며 시장진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기업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서 기업가정신,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창업교육, 창업지원프로그램, 멘토링 등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또한 이들 개별적인 요인들과 창업의지와 의 관계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매개요인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환경적 요인,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위의 선행연구에 기준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서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청년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이은정, 2012). 또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회복탄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행연구가 있다(마예림, 2016).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된 회복탄력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개발

### 2.1 창업교육

#### 2.1.1 창업교육의 개념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의 개념을 좁은 의미에서 먼저 살펴보면,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기업(Business Venture)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Kourilsky, 1995).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소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하며 교육하는 일련의 정형화된 교육의 집합체를 창업교육이라고 하였다(Bechard & Toulouse, 1998).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Rae, 2004).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창업교육은 종업원으로서 창업 및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사업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영업(Self-employed)을 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기업가 및 기업 소유자에게 사업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한다(Gibb, 2002). 즉,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 창업자로서 사업 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신윤철 외, 2007). 창업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Ronstadt, 1985).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함양시키

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직업선택의 대안으로써 창업이 하나의 중요한 직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창업교육의 주요 목표라고 주장하였다(Hills, 1988).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분석 및 계획 수립 능력을 획득하며, 창업가적 추진력과 자질, 능력을 확보하고, 여러 분석적 기법을 통한 위험회피 기법을 습득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습득하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보하며, 새로운 사업이나 벤처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Garavan & O'Connell, 1994). 창업교육이라고 통칭되는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미래의 창업기업가를 위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은 물론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 고용인으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폭 넓게 정의하고, 예비창업자로서의 경영지식,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창업교육이라고 주장하며 창업교육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다(최종열, 정해주, 2008).

### 2.1.2 창업교육의 목적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동참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지식의 교육을 통해 개인의 창업 실패를 예방하고,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도 한다(김재동, 2006). 창업교육은 주어진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이끌고, 나아가 이러한 창업을 통해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정진수, 최종인, 2008). 창업교육의 지향점은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하고, 이러한 목적하에 창업교육의 지향점은 정보·기술 등의 지식과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도록 성공한 사업가의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2.1.3 창업교육관련 선행연구

Babson College의 창업교육을 체계화하면서 기존의 창업교육의 틀을 버리고 창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전 지침들을 제시하면서 창업이 직업경력이 될 수 있으며 창업을 한번 일으키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연이어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Ronstadt, 1985). 창업을 사업의 시작단계인 스타트업(Start Up) 단계로 국한하고 성공한 기업가들에 의해 검증되어진 기법을 창업교육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였다(Vesper, 1985).

창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식 흡수형, 분석형, 확산형, 투사형의 네 가지 사고유형이 요구되며, 창업을 위해 일반적인 사업지식, 창업관련 일반지식, 기회특정지식(Opportunity-specific Knowledge), 창업특정지식(Venture-specific Knowledge)을 습득하여 이를 위의 네 가지 사고유형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Vesper, 1985). 캐나다의 창업교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던 McMullan & Long는 창업은 새로운 사업의 창조적 시도으로써 창업과정의 변화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전략들을 독창적으로 구사하며 충분한 생존능력을 갖출 때까지 성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시작단계는 물론 성장단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cMullan & Long, 1990). 또한 창업교육에 있어서 전략(Strategy)과 창의성(Creativity)을 강조하면서 불확실성, 위험부담, 사업경영능력, 창조성, 혁신 등이 창업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창조성에 대한 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McMullan & Long, 1990).

대학은 창업가가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새로운 벤처기업 창조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다(Gnyawali & Fogel, 1994). Cohen et al.는 창업교육이 비전, 창의성, 직관, 의식 및 상식 등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Cohen et al., 1994).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Chen, Greene & Crick, 1998) 학생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킴으로써 창업에 대한 지각된 실현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rueger & Brazeal, 1994).

Kirzner는 창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불확실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지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Kirzner, 1997). 실제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향후 창업가가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olvereid & Moen, 1997). 창업교육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 관련 태도와 의지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Chen, Greene & Crick, 1998). McGrath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실패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의 실패를 줄여준다고 하였다(McGrath, 1999). 대학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그들의 창업가적 특질을 개발하여 이러한 의지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게 된다(Debackere & Veugelers, 2005).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인 특허 확보 및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창업기업들의 경제적인 효과 창출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Tijssen, 2006). 창업교육은 교육을 수강한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한정화, 이명자, 1998).

활발한 창업은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기업 활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도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박철, 강유리, 2010).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부족과 청년실업을 증가라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러한 청년실업을 증가는 결국 국가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김주미, 박재필, 2011).

학자들마다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2.2 멘토링

### 2.2.1 멘토링의 개념

1970년대 후반 조직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1978년 하버드대학에서의 연구조사 결과 성공한 기업가 혹은 성공한 사업가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1978).

멘토는 '진입하려고 하는 세계에 오래 있었던 어떤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라고 정의했다(Levinson, 1978).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더욱 나은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테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하였다(Hunt & Michael, 1983). 비슷한 관점에서 '경험이 많은 연장자로서 조직에 진입하는 모든 신규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지도, 피드백, 대인관계 개발과 관련된 지원, 경력 계획 등을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장자'로 정의한다(Noe, 1988). 멘토란 그들이 속한 조직 내에서 개인 및 조직의 이익은 멘티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멘티의 개별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 하였다(Kram, 1983). 신입사원들에게 지도 및 후원, 기능을 하게 되는 상급자 및 기존 구성원들을 멘토(Mentor)라고 부를 수 있으며, 멘토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는 하급자와 후배들을 멘티(Mentee) 또는 프로테제(Protege)라고 할 수 있다(안호준, 2008).

멘토링의 정의는 조직생활에서 습득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수함으로써 그들이 조직생활에 적응하고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으로 조직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Erickson, 1961). 인간이 조직에서 형성하는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이 조직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조직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규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하고 강한 인간관계로써 파악하였다(Noe, 1988). '효과적인 멘토링의 과정은 바람직한 멘티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관계를 조

절하며, 최종적으로 조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과정 또는 구조'라고 주장하였다(Murray & Owen, 1991). 멘티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Shea, 1992). 멘토링의 과정은 새로 입사한 조직의 신입 직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Ostroff & Kozlowski, 1993). 집중적인 인간관계의 교환을 통해 경력계획이나 개인적 성장에 대한 지지,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 피드백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Russel & Adams, 1997). 멘토링의 전통적 정의를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인식했고, 멘토링을 수평적, 상호의존적, 상호 작용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최근의 관점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규정한다(Darwin, 2000). 멘티의 생각과 그들의 미래, 그리고 성장 단계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능을 멘토링으로 정의하였다(Sour와 Rasmusse, 2003). 기술이 적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구체적인 능력을 개발하고자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미흡한 사람을 신중하게 짝을 짓는 것이라고 하였다(Murray, 2006).

'멘토와 멘티가 일정기간 동안 신뢰를 쌓으면서 경력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상호관계'라고도 정의하였다(김명옥, 2002). 멘토링은 멘티가 멘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현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은 통찰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멘토는 본인이 보유하고거나 경험한 정보와 기술들을 제공하는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멘티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긍정적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박서영 외, 2013).

### 2.2.2 멘토링의 주요기능

첫째, 경력개발 기능으로 멘티가 조직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직 내에서의 승진 또는 경력발전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개발할 수도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이다(Kram, 1983). Viator는 멘티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식을 습득하고 조직 내에서 승진과 경력 개발을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Viator, 2001)

둘째, 심리사회 기능으로. 이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한 것으로 멘티가 조직 내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멘토가 지원하고, 멘티의 직무범위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조언 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Kram, 1983). 심리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멘토링이 조직 안과 밖으로 친밀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에서 형성되어야만 한다(Viator, 2001).

마지막으로 역할모형 기능이다. 멘토가 멘티의 역할모형이 되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 및 태도와 노하우 등을 가르쳐 주는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멘티는 멘토를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역할 모델로써 규정하고, 닮아가려는 상호작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06). 멘토가 조직 내에서 멘티의 역할 수행의 전수자로 활동하며 적절한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멘티의 역할수행의 효율성을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Weiss, 1997).

### 2.2.3 멘토링 관련 선행연구

멘토링을 수평적, 상호의존적,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최근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규정한다(방혜민, 2013). 아울러 역량의 개념은 중요사건 면접기법을 통한, 특정상황에서 행동하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원자의 특징, 기술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면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Flanagan, 1954; 구병모 외, 2010).

역량개념은 업무성과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되었다가 후에 '우수자와 평균성과자를 구분하는 지식, 기술, 능력, 기타특성'으로 정리되었다(McClelland, 1973; 안호준, 2008; 이동욱, 2011). Spencer & Spencer는 McClelland과 같은 기본개념을 가지면서, 역량을 개발 가능 정도에 따라 특질(trait), 동기(motive), 자기개념(self 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인 5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으며, 이중 지식과 기술은 개발하기 쉽지만 동기, 특질, 자기개념은 파악 및 개발이 어렵다고 하였다(Spencer, 1993).

이러한 역량모델은 다양한 HR정책, 즉 모집과 선발, 교육과 개발, 성과 평가, 멘토링, 코칭, 카운슬링, 보상체계, 경력개발, 후계자 승계계획, 변화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이만기, 2006).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역량의 정의와 관점에서의 공통점은 그 개념이 성과(performance)와 별개로 생각하기는 어렵기에 업무수행에서의 바람직한 결과를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성과를 낳게 하는 투입요소로서의 다양한 영향요인과, 성과의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역량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Hoffmann, 1999; 구병모 외, 2010). 멘토 역량은 멘토가 멘티와의 관계에서 발휘하는 역량으로서 일부 연구에서는 특성(characteristics), 특징(traits), 태도(attitudes)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멘토역량은 전술한 역량의 개념에서 보면 연구자별로 상황에 따라 제시한 바가 다르나 리더십 역량의 범주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안호준, 2008; 이상호 외, 2006). 리더십 역량이 성과 지향적이면서, 한명의 리더와 한 명 이상의 종사원이 포함되고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라면, 멘토역량은 프로테제의 경력계획 등에 영향을 주는 관계이며 한 명의 멘토와 한 명의 프로테제로 구성이 되어 다소 비공식적이면서 복잡하고 간접적인 관계로 정의 할 수 있다(Appelbaum et al., 1994; Darwin, 1999). Sosik, J. J. & Lee, D. L.는 멘토의 사회적 판단능력(Social judgment capabilities)이란 멘토가 멘토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멘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Sosik, J. J. & Lee, D. L., 2002). Smith, Howard, & Harrington은 멘토의 특징을 델파이기업을 통해 멘토로부터 도출했는데, 멘토파워, 멘토개성, 멘토역량이 해당된다고 하였다(Harrington, 2005). 이중 멘토역량을 인격(respectability), 지식(wisdom), 감수성(sensitivity)으로 보고, 특히 인격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Smith, 2005; 안호준, 2008).

## 2.3 자기효능감

### 2.3.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에 대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고, 어떤 과업이나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능력과 함께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므로 자기효능감이란 객관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의미하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또는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핵심 요인으로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으로서 캐나다의 심리학자(Bandura)가 제안한 개념이다(기하영, 2016).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권혁호 외, 2002).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지각, 자기조절과 문제해결을 통한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은 어떤 특정한 과업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윤방섭, 2004). 자기효능감은 '애매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개인이 과제수행을 위해 동원하게 되는 기술이나 지식 등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준다(황수연, 2007).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 혹은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구진아, 2010).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인이 장애에 부딪혔을 때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이자 일종의 자신감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당면한 업무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을 통해 높은 성취수준의 결과를 보일 수 있

다(박철우, 2016). 자기효능감은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개인적으로 기업을 시작하고 성공시키려면 인지된 자기효능감이 있어야 하며, 자기효능감의 유무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박철우, 2016).

자기효능감은 과업 의존적인 자신감으로 창업의지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박시사, 강성일, 2007). 창업 프로세스에서 자기효능감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업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을 창업 자기효능감(ES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으로 명명하여 창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백수민,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의지간의 매개변수로 선정했다.

### 2.3.2 자기효능감의 특성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더 크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며, 높은 성과를 통해 높은 보상을 기대하며 주어진 제약 속에서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기회에 주목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업무성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직무 만족, 조직 몰입과 같은 개인 태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진욱, 2013).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과업 초기의 난관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최선이 아닌 결과에 만족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낮은 성과를 기대하여 결국 부정적인 보상을 예상하게 되며, 주어진 제약들을 이길 수 없는 장애로 인식함으로써 노력해도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포기상태를 쉽게 받아들인다(정병헌, 2015).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직무소진 경험 자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김진욱, 2013).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자기 확신에 따른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황상규, 2013).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예비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선행조건 중 하나로, 창업효능감의 지각이 높은 예비창업자는 경쟁적인 창업환경에 대하여 기회가 충만한 것으로 지각하고 위험, 역경, 불확실성 등이 높은 창업 현실에서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실패의 가능성은 적게 지각하며 도전적 상황을 자기 의지를 펼쳐나갈 좋은 기회라고 지각한다(Krueger & Brazeal, 1994).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 프로세스에서 수없이 부딪치는 역경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Shane et al., 2003).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등장하거나 자신의 과업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생기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안승권, 2016).

### 2.3.3 자기효능감 관련 선행 연구

창업의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가는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더 크므로 창업의지를 더 키울 수 있다(Boyd and Vozikis, 1994).

심리적 특성요인 중 내적통제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예측변수 중 인적자본과 심리적 특성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다(박시사, 강성일, 200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창업에 관심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지원제도,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정대용 외, 2013).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데,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하며 이는 자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가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양준환, 2015).

창업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Zhao et al., 2005). 창업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창업교육은 창업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기회제공을 통한 자기효능감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Zhao et al., 2005).

따라서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으로 작용 할 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 2.4 회복탄력성

### 2.4.1 회복탄력성의 개념

라틴어의 *resiliere*에서 유래된 *resilience*는 원래 어떤 물질이나 기관의 유연한 탄력성을 묘사하는 용어였다(Chapman, 1992). 이 용어가 사회과학 등의 학문에서 상황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박현선, 1998).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성격적 특성 차원에서 탄력성을 정의한 것인데,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이를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 명명한다(Block & Block, 1980).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쳐 ‘회복탄력성’이라고 명명했다(신우열 외, 2009).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의 환경에서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박현선, 1998). 두 번째 방식은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 차원에서 정의한 것으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명명되었다(Garmezy, 1993). 회복탄력성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변화하고 발달하는 즉, 생득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역동적 과정(*process*)으로 규정한 것이다(홍은숙, 2006). 김주환 등(2009)은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쳐 ‘회복탄력성’이라고 명명했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그 밖에도 학자들은 회복탄력성을 주로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 면역성(Rutter, 1985), 내적·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Waters, 1983),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긍정적 능력(Polk, 1997), 정신적 저항력(홍은숙, 2006) 등으로 정의한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견해 차이를 보이며, 용어에 대한 사용에서도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다변적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홍은숙, 2006;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정의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적응적 차원으로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요약된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회복탄력성은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Anthony, 1987).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다(Block & Kremen, 1996). 어떤 특정 상황, 즉, 고난, 위험상황, 위기, 스트레스 등의 상황이 고려되며, 특히 고위험 상황 속에서 융통성있게 외부의 힘에 견디고 성공적으로 이전의 적응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복귀 능력이다(이상준, 2000). 불안과 긴장 상황에서 융통성있게 대처하고 부적응을 방지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긴장,



압력의 상황에서 완충적인 특성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구인이다(이수현, 2007).

Schoon(2006)은 '위험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 회복탄력성을 정의하였다(Schoon, 2006). 회복탄력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며, 일의 수행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복과 성공의 기본요소이다(Reivich & Shatte, 2002). 즉, 인간이 내·외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일상 속의 난관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수, 실망, 외상, 역경을 극복하고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능력이자 분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는 역량이며, 인생의 도전에 대해 자신감, 목적, 의무, 희망, 사고력, 감정이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성동제, 2015). 반면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적인 특성이 아닌 외부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향 주고받아 학습할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다(마예림, 2016).

#### 2.4.2 회복탄력성 관련 요인

회복탄력성의 구성 요인은 개인의 기질이나 인지 능력, 성격적 특성 등의 개인 내적 요인들과 가정,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 등의 외적 요인 등으로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이해리, 조한익, 2005). Wagnild Young은 자기신뢰와 독립심, 의지력, 인내심, 평정심을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Wagnild Young, 1993). Recivich와 Shatte(2002)는 공감능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자기효능감, 원인분석력, 적극적 도전성, 낙관성의 7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Recivich & Shatte, 2002).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자신감,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 정서조절, 효율성으로 제시하였다(Kolhnen, 1996). Russell은 스트레스 상황과 변화하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성요소를 자기신뢰, 대인관계, 사회성, 계획성, 문제해결력, 융통성, 조직력, 개인적 비전으로 제시하였다(Russell, 1995).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은 회복탄력성을 단일 개념이 아닌 외부요인까지 고려하여 여러 개의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연구하였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을 크게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3가지 상위요소로 구성하였으며 통제성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긍정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사회성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통제성의 하위요인으로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이 있고, 긍정성의 하위요인으로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으로 제시되어 있다(마예림, 2016).

#### 2.4.3 회복탄력성 관련 선행 연구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은 하와이의 카우아이(Kauai)섬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3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극심한 빈곤, 고아, 부모의 이혼이나 정신질환 등의 상당한 역경에 직면하고도 3분의 1의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유능하고 자신감 넘친 성인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확인했다(Werner, Smith, 1982)

초기의 회복탄력성 연구는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입 전략에서 출발하였다(Fraser et al., 1999). 회복탄력성이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킨다는 점을 밝혔다(Block, Kremen, 1996). 탄력적인 사람일수록 긍정적 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경험에서 신속하게 회복되며, 문제 상황과 충돌할 경우 긍정적 의미를 찾아 효과적으로 정서조절 기제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Tugade, Fredrickson, 2004).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공격에 민감하지 않으며 충동을 잘 조절하는 통제특성을

보이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 역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보고하였다(구형모, 2000).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는 주로 병리적· 부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최근엔 질병보다는 건강에, 좌절보다는 회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극복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홍은숙,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 중 정서조절력이 우울 성향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신혜인, 2009).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의 전체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배혜련, 2010). 통합미술치료가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인 원인 분석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등이 남학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이영아, 2010).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겁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다. 즉, 자신의 실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이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체계적인 훈련이 뒷받침 된다면 누구든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김주환, 2011). 사람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생활과 대인관계에 잘 적응해 나가며 자아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정선아, 2011).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성, 학습욕구, 공감능력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원, 2014). 회복탄력성은 생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 불안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중 통제성과 긍정성이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박은지, 2014). 회복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하위요인별로는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반면 통제성과 사회성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신혜정, 2014). 최근엔 극복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김정, 2017).

최근 심리학, 교육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탄력성 요인이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때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2.5 창업의지

### 2.4.1 창업의지의 개념

Fishbein & Ajzen은 인간 행동의 대부분이 의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단순한 예측치는 그 행동을 실행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Fishbein & Ajzen, 1975).

Bird(1988)에 의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창업의지의 개념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 혹은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행동 과학 연구에서 의지를 심리적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의지가 다른 영향 요인들보다도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 1988). Bird는 창업의지란 조직고용(Organization-employed)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자영업(Self-employed)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Bird, 1988). 창업이란 분명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창업초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업의지라고 하였다(Bird, 1988).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서 의도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과정을 설명해 주는 핵심개념이며 창업이라는 과정에서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하다(Krueger, 1993; Krueger & Brazeal 1994; Katz & Gartner, 1988). 사업을 소유할 가능성에 관한 판단으로 창업가가 되려는 개인의 일반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Crant, 1996).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

인 개념이 된다(Veciana et al., 2005). 즉, 창업의지는 창업의 전 단계이며, 창업의지가 없으면 기업의 설립이 결코 진행될 수 없다고 보아 창업의지는 기업설립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강성일, 2007).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며, 창업과정의 첫 번째로 새로이 갖게 될 직업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 창업의도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우, 2000). 하나의 사업체가 탄생하기 위해 계획이 구체화되는 일련의 행동을 창업활동이라 하고, 이러한 창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창업의지이다(강재희, 강진희, 2013). 창업의지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행동에 앞서는 마음가짐(김종운, 2014). 창업의지는 현재가 아니라 향후 창업 활동을 하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이병권, 전인오, 2014). 그리고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하는 개인의 의지나 열정이다(강재희, 2016).

이지우(2000)는 창업의지의 중요성은 지역경제나 국가, 또는 조직이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 쇄신력과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창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이지우, 2000). Krueger et al.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창업의지라고 하였다(Krueger et al., 2000).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창업의지는 사람들이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Bae et al, 2014). 이러한 의지가 바탕이 된 창업의지는 기업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다(Veciana et al., 2005). 그래서 실제 창업을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에 미치는 창업의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호병환, 2016).

### 2.5.2 창업의지의 영향요인

개인적 속성은 새로운 기업가의 창업의지를 결정하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Nga, Shamuganathan, 2010).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기업가정신인 성취감, 위험감수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직업, 종교,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Mazzarol et al., 1999). 내부요인인 개인적 특성과 함께 경제적 환경, 제도적 환경, 사회적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지지도, 고용사정 등 외부환경 여건 등이 잠재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오상훈, 2013).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확인하고 셀프 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역할이 중요하다(유봉호, 2015). Haase & Lautenschlager는 특정 행동을 하는 개인의 의지는 개인적인 특성 및 속성들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Haase, Lautenschlager, 2011). 개인적 특성은 물론 개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창업행동에 있어서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동기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Mueller, Thomas, 2001).

개인의 특성 외에도 창업의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창업자 개인의 특성, 준거적 환경,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 사업적 환경, 사회적 위상, 창업교육,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체적 사업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다(Schein, 1978; 정대용, 1999; 윤방섭, 2004). 유연호, 양동우는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 경력지향성(안정·자율·기술·관리·사업지향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위상, 일(work), 기업이미지, 네트워크 환경, 대학의 창업문화),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연대회, 창업보육센터, 창업자금, 창업정보센터, 창업자문단, 창업연구소, 창업한 졸업생 네트워크)을 선정, 이들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적 창업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유연호, 양동우, 2008).

### 2.5.3 창업의지 관련 선행 연구

의지는 바라던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의향의 정도를 포착한다고 하였다(Ajzen, 1991). 의

지는 계획된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최고의 예측 도구로 인정되어 왔다(Bagozzi et al., 1989). 특히 흔하지 않거나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적 지체를 수반하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Krueger & Brazeal, 1994).

새로운 비즈니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창출되고 진화하는데 이 과정에는 상당한 계획이 수반되므로(Bird, 1988) 창업은 명백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행동으로 분류된다(Katz & Gartner, 1988). 실제로 의지가 계획된 행동을 예측하듯(Bagozzi, R. P., Baumgartner, J., Yi, Y., 1989) 창업의지는 창업을 수행하는 행동을 더 잘 설명하거나 더 잘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창업이 기회를 강조하는 생각의 방식이고, 기회를 발굴하는 프로세스는 명백하게 개인의 의지나 의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Krueger et al., 2000). 즉, 오랜 시간 창업이 발전되어지는 과정(Gartner et al., 1994)에서 파생되는 결과는 초기 창업의지를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그만큼 창업의지가 창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창업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개인의 창업의지가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에 기반이 되며,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한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윤남수, 2012). 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들은 창업의지가 없는 창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수가 탐색적으로 기회를 발견하였고, 비의도적인 창업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우연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회와 만나고 있었다. 따라서 창업의지와 기회 단서 접촉 사이에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승배, 2013). 개인에게 창업의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하여 어떻게 창업에 대해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미래의 창업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창업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이병권, 전인오, 2014). 따라서 창업은 창업자의 계획된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창업에 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로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박시사, 강성일,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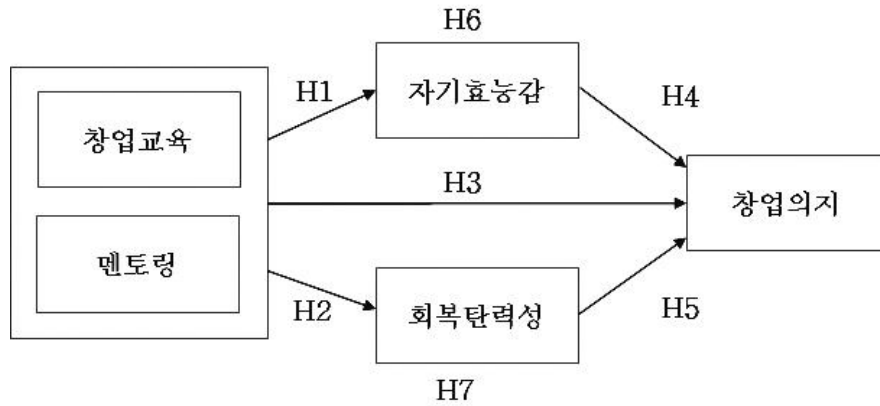
한편 Oosterbeek et al.(2010)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 창업의지의 변화를 측정하고,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기술에 대해서 유의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심지어 창업교육을 받은 이후 창업의지가 더 낮아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Oosterbeek et al., 2010). 그리고, von Graevenitz et al.은 독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작지만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von Graevenitz et al., 2010). 이 외에도 Fayolle et al.과 Garalis & Strazdiene은 프랑스와 리투아니아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에 대한 기술 및 태도, 또는 창업의지와외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실제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Fayolle et al., 2006).

위와 같이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각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설문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변수들의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독립변수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이들의 관계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3.2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각각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연령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의 경험 정도의 영향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와 영향관계에 대하여는 국내외 학자들의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Chen et al.(1998)과 Krueger & Brazeal(1994)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창업교육은 지식향상, 자신감 고취 및 자기효능감 촉진을 통하여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멘토링과 창업의지와 관계에 있어서 박경애(2016)는 멘토링이 창업자의 개인특성(혁신성향, 진취성향, 위험감수 성향)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와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창업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가에 비하여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고 통제하는 믿음이 커서 창업의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있다(Boyd & Vozikis, 1994).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요인,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는 요인,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장벽과 같은 요인과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멘토링의 제도적인 요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심리적인 요인이 이들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창업교육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멘토링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창업교육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멘토링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창업의지에 정(+)<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

가설3-1.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정(+)<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

가설3-2. 멘토링은 창업의지에 정(+)<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

가설4.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

가설5. 회복탄력성은 창업의지에 정(+)<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

가설6.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7.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또는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역량,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	(이재석, 이상명, 1995).
멘토링	멘티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멘토와 멘티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	(Shea, 1995).
자기효능감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이자 자신감	(박철우, 2016)
회복탄력성	위험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Reivich & Shatte, 2002).
창업의지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창업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의사의 정도	(Ajzen, 1991; Crant, 1996).

## IV. 연구결과

### 4.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조사는 창업교육 혹은 멘토링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가 모집단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로 설정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78명의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을 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 4.2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의 응답자(178명)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IV-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69%로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50대 이상이 가장 높게(41%) 분포되었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88%이며, 창업교육 경험은 84%, 멘토링 경험은 7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경험 또한 52%로 다소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구분	표본(명)	백분율(%)
성별	남자	124	69%
	여자	55	30%
연령대	20대	41	22%
	30대	36	20%
	40대	27	15%
	50대 이상	75	41%
학력	고등학교 졸업	8	4%
	전문대 졸업	12	6%
	대학교 졸업	122	68%
	대학원 졸업 이상	36	20%
창업교육 경험	없음	29	16%
	10시간 이하	51	28%
	20시간 이하	31	17%
	30시간 이하	14	7%
	31시간 이상	54	30%
멘토링 경험	없음	44	24%
	1~2회	67	37%
	3~4회	38	21%
	5~6회	10	5%
	7회 이상	20	11%
창업경험	예	94	52%
	아니오	85	47%
창업희망분야	제조업	127	45%
	서비스 및 기술	155	55%

### 4.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각 변인들의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설문에서 사용된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관련성을 소수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전체변수들의 공통요인을 찾아내어 각 변수가 받는 영향의 정도와 그 집단의 특성을 규정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여러 개의 변수들에 내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압축, 요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토대를 이루는 요인을 발견하여 주어진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판단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표3>의 결과로 보아 Bartlett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Kaiser-Meyer-Olkin 측도 역시 0.915로 기준치인 0.5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KMO와 Bartlett의 검증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915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증	근사 카이제곱	2246.686
	자유도	136
	유의확률	.000

<표 3>에서 1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eigenvalue와 설명력(%분산)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추출 개수를 지정하기 위해 eigenvalue 1을 이용하였고, 요인 4에서 .826이므로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4개의 요인들이 전체분산의 75.805을 설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설명된 총 분산

구성 요소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로딩			회전 제곱합 로딩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	누적(%)	총계
1	8.297	48.809	48.809	8.297	48.809	48.809	4.012
2	2.703	15.902	64.710	2.703	15.902	64.710	2.991
3	1.061	6.239	70.949	1.061	6.239	70.949	2.958
4	.826	4.856	75.805	.826	4.856	75.805	2.925
5	.627	3.686	79.492				
6	.515	3.032	82.524				
7	.439	2.581	85.105				
8	.375	2.203	87.308				
9	.333	1.959	89.267				
10	.317	1.867	91.134				
11	.298	1.756	92.889				
12	.275	1.619	94.508				
13	.252	1.483	95.991				
14	.193	1.135	97.127				
15	.174	1.025	98.151				
16	.160	.943	99.095				
17	.154	.905	100.000				

회전된 요인행렬을 나타내고 있으며 베리맥스방식으로 7회 반복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표 5> 회전 성분 행렬

	구성요소			
	1	2	3	4
멘토3	.837			
멘토1	.793		.367	
멘토2	.756		.344	
멘토4	.730		.333	
멘토5	.711		.369	
효능2		.857		
효능1		.778		.302
효능3		.755		.334
효능4		.710	.414	
교육2	.359		.817	
교육1	.485		.750	
교육4	.482		.700	
교육3	.463		.658	
탄력3				.842
탄력4		.320		.810
탄력2				.751
탄력6		.388		.703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로 설계된 항목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창업교육 .910, 멘토링 .915, 자기 효능감 .884, 회복탄력성 .864, 창업의지 .964로 모두 임계치인 .7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신뢰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창업의지	창업교육	멘토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Cronbach's $\alpha$	.964	.910	.915	.884	.864

### 4.4 가설검정결과

<표 7> 가설 1,2 계수

변수		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VIF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R <sup>2</sup>	F
자기 효능감	(상수)	4.022	.049		82.441	.000				
	멘토링	.309	.049	.412	6.306	.000	1.000	1.000	.251	29.353
	창업교육	.213	.049	.285	4.352	.000	1.000	1.000		
회복 탄력성	(상수)	3.868	.047		81.991	.000				
	멘토링	.215	.047	.312	4.546	.000	1.000	1.000	.174	18.393
	창업교육	.190	.047	.276	4.015	.000	1.000	1.000		

가설1의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자기효능감에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멘토링(p<0.01)과 창업교육(p<0.01)은 종속변수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5.1%이다. 독립변수에서 멘토링(.309)이 창업교육(.213)보다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종속변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개의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멘토링(p<0.01)과 창업교육(p < 0.01)은 종속변수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7.4%이다. 독립변수에서 멘토링(.215)이 창업교육(.190)보다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설 3,4,5 계수

변수		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VIF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R <sup>2</sup>	F
창업의지	(상수)	3.996	.068		58.556	.000				
	멘토링	.266	.068	.274	3.890	.000	1.000	1.000	.134	13.519
	창업교육	.236	.068	.243	3.451	.001	1.000	1.000		
창업의지	(상수)	1.105	.371		2.983	.003				
	멘토링	.044	.065	.046	.682	.496	.815	1.227	.362	32.976
	창업교육	.083	.062	.085	1.341	.182	.902	1.108		
	자기효능감	.718	.091	.553	7.900	.000	.749	1.335		

가설3의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멘토링(p<0.01)과 창업교육(p<0.01)은 종속변수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3.4%이다. 독립변수에서 멘토링(.266)이 창업교육(.236)보다 종속변수에 약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의 유의성 검증은 자기효능감(p<0.01)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가설5의 창업교육과 멘토링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형1과 모형 2에

서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표준화계수 베타 값은 .274(유의확률 .000)에서 표준화계수 .046(유의확률.496)으로 변화하였고,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표준화계수 베타 값은 .243(유의확률 .001)에서 표준화계수 .085(유의확률.182)로 변화하였고,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대하여 표준화계수 베타 값은 .553(유의확률 .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형2에서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9> 가설 6, 7 계수

변수		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VIF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R <sup>2</sup>	F
창업 의지	(상수)	3.996	.068		58.556	.000				
	멘토링	.266	.068	.274	3.890	.000	1.000	1.000	.134	13.519
	창업교육	.236	.068	.243	3.451	.001	1.000	1.000		
창업 의지	(상수)	1.196	.372		3.216	.002				
	멘토링	.111	.063	.114	1.759	.080	.894	1.118	.362	32.976
	창업교육	.099	.062	.101	1.589	.114	.916	1.092		
	회복탄력성	.724	.095	.512	7.624	.000	.826	1.210		

모형2에서 회복탄력성은 p-value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상대적으로 51.2%의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 멘토링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형1과 모형 2에서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표준화계수 베타 값은 .274(유의확률 .000)에서 표준화계수 .114(유의확률.080)으로 변화하였고,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표준화계수 베타 값은 .243(유의확률 .001)에서 표준화계수 .101(유의확률.114)로 변화하였고, 회복탄력성은 창업의지에 대하여 표준화계수 베타 값은 .512(유의확률 .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형2에서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회복탄력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10> 창업교육,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영향력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멘토링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046	.227	.274
창업교육			.085	.157	.243
멘토링	회복탄력성		.114	.160	.274
창업교육			.101	.142	.243

<표 11> 가설 채택여부

번호	가 설	채택여부
H1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
H2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
H3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창업의지의 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
H4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
H5	회복탄력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
H6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와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0
H7	회복탄력성은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와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0

## V. 결 론

###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고,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와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간 개별적으로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창업교육과 멘토링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특히, 교육학 및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변수인 회복탄력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매개역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다.

### 5.2 연구결과의 시사점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과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심리적인 요인을 변수로 적용하여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창업교육, 지원제도, 멘토링과 같은 제도적인 요인과 기업가정신, 개인의 특성, 환경, 자기효능감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 되어왔으나,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심리적 변수인 회복탄력성을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이 차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수준( $\beta: .512$ )임을 확인하였고,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창업의지에 대한 두드러진 영향력( $\beta: .553$ )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창업교육의 효과( $\beta: .285$ )보다는 피 교육자 맞춤형 멘토링 효과( $\beta: .412$ )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넷째, 창업교육과 멘토링의 경험 정도에 따른 창업의지 수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창업교육은 일정 시간 이상 경험을 하게 되면 창업의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도록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다섯째, 멘토링은 일정 횟수 이상이 되더라도 창업의지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단계별 맞춤형 멘토링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멘토의 필요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강화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된 바에 의거하면 체계적인 창업교육 시행과 더불어 예비창업자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5.3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응답자 중 50대의 비중이 매우 높아(41%)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은 시니어 창업자의 응답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향후 청·장년 창업희망자 및 시니어 창업희망자로 분류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창업교육과 멘토링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여, 향후 교육커리큘럼, 멘토링 및 강사 역량 등 교육관련 주요 변수를 추가하여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 REFERENCE

- 김재혁(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 인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진아(2010), *국어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교수실재감의 학습효과 예측력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홍(2014), *창업멘토링 교육 요인이 창업멘토링 교육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 JST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홍, 김용태(2014), “창업멘토링 교육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 김명옥(2002), *비서직 종사자를 위한 e-Mentoring 시스템 설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식(1997), “상업교육의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13(1), 67-93.
- 김동일, 김원호, 김명찬, 최선, 이주영(2011), “다시 생각해 본 리질 리언스: 외상성 손상 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적응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1371-1390.
- 김성우(2017), *대학의 창·취업교육이 창·취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수복(2016),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주관적 행복감 및 회복 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수안, 민경환(2011), “탄력성 척도의 비교 및 탄력성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 25(2), 224-227.
-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5.
-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게 임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43 -81.

- 김주미, 박재필(2011), “국제간 비교 연구를 통한 기업가정신 지수 표 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남정인(2013),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마예림(2016),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목영두, 최명길(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한 창업학 교육과 정 개발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833-857.
- 문성식(2017),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호(2016), “대학생의 실패손실 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가정한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6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7-50.
- 박시사, 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박영신, 김의철 역(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총서3, 서울: 교육과학사.
- 박용호(2014), *창업멘토링이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지(2014),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인영(2014), *대학생의 부모애착, 성인애착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혜민(2013), *멘토역량과 멘토링이 창업초기 성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윤철, 은태욱, 이용진, 김진수(2007), “공업고 BizCool 운영에 대한 담당 교사와 학생의 인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2(2), 104-131.
-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호준(2009), *멘토역량, 멘토링 기능이 신입사원의 조직유효성과 조직 시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방섭(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 경영연구*, 17(2), 89-110.
- 이재석(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임덕(2012), *특수교사의 회복탄력성, 낙관성, 긍정적 환상과 심리 사회적응 간의 관계: 중·고등학교 특수학급담당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정숙(2015),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과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수, 최종인(2008), “인터넷 창업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3(1), 29-55.
- 최종열, 정해주(2008), “경영학 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213-230.
- 태은주(2015),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선영(2015), *회복탄력성, 일-삶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정화, 이명자(1998), “창업을 위한 경영학 교육: 한국의 창업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2(2), 5-26.
- 호병환(2016), *대학 및 사회의 창업지원과 대학생의 창업의지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gozzi, R. P., J. Baumgartner, and Y. Yi(1989),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intentions as mediators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0(1), 35-62.
- Bae, T. J., S. Qian, C. Miao, and J. O. Fiet(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254.
- Bechard, J. P. and J. M. Toulouse(1998), "Validation of a didactic model for the analysis of training objective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317-332.
- Block, J. H. and A. Kremen(199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stress on native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hen, C. C., P. G. Greene, and A. Crick(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ebackere, K. and R. Veugelers(2005), "The role of academic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in improving industry science links", *Research Policy*, 34(3), 321-342.
- Fayolle, A., B. Gailly, and N. Lassas-Clerc(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701-720.
- Fishbein, M. and I. Ajzen(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Y: Addison-Wesley.
- Garavan T. N. and B. O'Connell(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 Gartner, W. B., K. G. Shaver, E. Gatewood, and J. A. Katz.(1994), "Finding the entrepreneur i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5-9.
- Gibb, A.(2002), "In pursuit of a new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4(3), 233-269.
- Gnyawali, D. R. and D. S. Fogel(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4), 43-62.
- Haase, H. and A. Lautenschläger(2011), "The 'Teachability Dilemma' of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2), 145-162.
- Hills, G. E.(1988), "Variations i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empirical study of an evolving fiel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 109-122.
- Hunt, D. M. and C. Michael(1983), "Mentorship: A career training and development too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3), 475-485
- Katz, J. and W. B. Gartner(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 Kirzner, I. M.(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 Kolvreid, L. and O. Moen(1997), "Entrepreneurship among business graduates: Does a major in entrepreneurship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1(4), 154-160.

- Kourilsky, M.(1995), "Entrepreneurship education: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Business Education Forum*, 50(10), 11-15.
- Kram, K. E.(1983),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 Krueger, N. F., M. D. Reilly, and A. Carsrud.(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evinson, D. J.(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entine Book.
- McGrath, R. G.(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 McMullan, W. E. and W. A. Long(1990), *Developing new ventures, The entrepreneurial option*. San Diego: Harcourt Brace Javanovich.
- Mueller, S. L. and A. S. Thomas(2001),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 51-55.
- Oosterbeek, H., M. van Praag, and A. Ijsselstein(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3), 442-454.
- Rae, D.(2004), "Entrepreneurial learning: a practical model from the creative industries", *Education + Training*, 46(8/9), 492-500.
- Roadstead,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Tijssen, R. J.(2006), "Universities and industrially relevant science: Towards measurement models and indicator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esearch Policy*, 35(10), 1569-1585.
- Vesper, K. H.(1985),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llesley, MA: Babson College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
- Viator, R. E.(2001), "The association of formal and informal public accounting mentoring with role stress and related job outcome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6, 79-93.
- Von Graevenitz, G., D. Harhoff, and R. Weber(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1), 90-112.
- Wagnild, G. M. and H. M. Young(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2), 168-178.
- Waters, E. and L. A. Sroufe(1983), "Social competence as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erner, E. E. and R. S. Smith(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Y: McGraw-Hill.
- Werner, E. E. and R. S. Smith(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 The Influence of Education and Mentoring of Entrepreneurship on the Intentions of Business Start-Up - Focusing on Self-Efficacy and Resilience -

Kim, Young-tae<sup>1)</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rural experience by applying the unified push-pull-mooring model. The theoretical model is an unified PPM model that introduces new variables based on PPM. The pull factor of the newly introduced variables we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Schmitt's Experience model and ServQual model. The hypothesis is set as follows. The push factor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experience satisfaction and the pull factor(experience attributes, service quality)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erience satisfaction. Also, mooring factor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experience satisfaction.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was tes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314 effective questionnaire data. Service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xperience satisfaction. Mooring factors have a negative effect on experience satisfaction. Push factor and experience attributes factor were analyzed to have a no significance effect on experience satisfaction. These results theoretically test that the mooring factors also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experience satisfaction in the rural experience. Based on the Schmitt's Experience model and ServQual model introduced as a pull factor, the proposed unified PPM model proved to be a useful analysis framework. In practice, it was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on what factors should be strategically and marketingly focused to activate the 6th industry experienc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tart-up education and mentoring on the intentions of business start-up, and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ether self-efficacy and resilience were mediated between them. The study surveyed 178 people in their 20s to 50s. The result analysis used the IBM SPSS Statistics 21.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analysis performed a regression analysis for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ypothesis verification. Empirical Research Result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start-up education and mentoring affect on the intentions of business start-up.

Second, study show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has an affect on the intentions of business start-up.

Third, start-up education and mentoring affect on self-efficacy and resilience.

Fourth, self-efficacy and resilience have been proven to be mediated wh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mentoring affect on the intentions of business start-up.

The results of the research proved that start-up education and mentoring provides and acts as a major role in improving the entrepreneurs' willingness when preparing a start-up. Furthermore, the study also shows the importance of start-up education and mentoring as a proactive variable to promote their will to start-up busines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elf-efficacy investigated in the preceding study translated into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It wa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tested the role of resilience, which was mainly studied in new variables, education and psychology.

**Keywords:** *Start-up education, mentoring, self-efficacy, resilience, intentions of business start up*

1) Author,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kyt63@yonsei.ac.kr

## 저 자 소 개

- 김 영 태 (Kim, Young-tae)
  - 유통관리사, 창업보육매니저, 직업상담사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중점교수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청년창업교육, 멘토링, 창업마케팅